광주 일선 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왜 발급 못하나 했더니…

"발급용지 없어서"…이유가 기가 막혀

수요 예측 잘못 석달째 부족
시민들 헛걸음 속출
전남은 자체 예산 들여 제작

김모(여·36)씨는 1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용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발급 자체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씨는 광주 5개 경찰서에 수소문한 끝에 북부경찰서에서 "몇 장 남아 있는데, 장담할 수 없으니 빨리 오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차를 돌렸다.

광주권 5개 경찰서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용지가 떨어져 경찰서를 찾은 시민들이 헛걸음을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용지 부족 사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이 자체 예산을 세워 용지를 만든 것과 달리 광주지방경찰청은 몇 달째 경찰청에서 보내주기만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용지는 광산경찰서 25매가 전부로, 하루 정도 분량에 불과하다. 남아 있는 수량이 떨어지면 당분간은 광주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용지 부족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다. 서부경찰서에서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발급용지가 떨어지기 시작한 뒤 2~3개 경찰서에서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서별로 남아 있는 발급용지를 빌려쓰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에는 설 연휴(6~10일)를 앞두고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를 제외한 3개 경찰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중단돼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발길을 되돌리는 사태가 속출했다. 서부경찰서의 경우 하루 평균 20여명이 허탕을 치고 있다.

광주지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2012년 1839건, 2013년 3801건, 2014년 5017건, 2015년 6714건 등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찰청이 국제운전면허증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광주경찰의 설명이다. 타지역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용지를 빌려다 쓰기 때문에 발급 중단 사태까지는 피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는 관할 면허시험장이 없어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차례 공급 요청을 했지만 3달째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경찰청에서 공급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용지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에서 6개월~1년 단위로 제작해 지방경찰서에 내려준다.

반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면허시험장에서 발급용지를 빌리는 것에 한계를 느껴 경찰청에 문의한 뒤 9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0매를 자체 제작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발급용지 제작 업체에 다음주 중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그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이 직접 나주에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아 배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와 자치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자치구에서는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개성공단 폐쇄조치 철회하라"

광주기독교협의회 회원 30여명이 17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백제실에서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사흘 함께 지낸 남성 2명 무슨 일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시신으로 발견

사흘을 함께 지냈던 50대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두 죽음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A(5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안방에서 누운 채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머리에서는 3~4개의 상처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6~7일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A씨가 보름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했는데 A씨 머리의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은 한달 뒤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13일 오후 북구 망월동 5·18묘지에서 숨진채 발견된 B(55)씨가 A씨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했다. B씨가 남긴 유서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A씨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다.

두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알게돼 지난달 31일 밤부터 2일까지 A씨의 아파트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사 청탁 돈 건네려던 경찰 현장서 적발

현직 경찰관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상관에게 뇌물을 주려다가 자체 감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지난달 열린 승진심사에서 승진한 기동대 소속 A경장이 순천경찰서 B경위에게 현금 350만원을 건네려 한 것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순천 출신인 A경장이 순천경찰서 C경위로부터 B경위를 소개받아 인사청탁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경장이 승진자 발표 이후 B 경위의 자택 앞에 찾아가 돈을 건네려던 현장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 등은 돈을 주고받으려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3명의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왜 안 비켜"…급제동 위협운전 20대 검거

여수경찰서는 17일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월해 급제동으로 위협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황모(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일 새벽 4시30분께 여수시 고소동에서 앞서가던 A(30)씨의 차량이 서행하면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해 A씨의 차량 앞에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차량을 발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겁을 먹고 도망가는 A씨의 차량을 3㎞ 다시 쫓아가 또다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경찰에서 "8일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홧김에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의료기기 납품 비리 눈감아준 순천의료원장

전남경찰청, 제조일자 위조 판매업자 등 12명 적발

의료기기 납품 비리를 눈감아준 공립 의료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중고 의료장비의 제조일자를 바꿔 신형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A(55)씨와 이를 묵인한 혐의(배임)로 순천의료원장 B(61)씨를 검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의료원장에게 청탁한 브로커와 제조일자 위조에 가담한 판매업자, 입찰 부정 참가 업자 등 모두 12명을 적발했다.

A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3명과 공모해 2~3년 전에 생산된 2억1000여만원 상당의 안과 의료장비 3종의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조작해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2014년 말 순천의료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A씨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A씨가 중고 의료 장비를 납품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다.

이에 대해 B씨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14년 2월 브로커 2명을 통해 의료원장 B씨에게 안과 장비 납품을 청탁한 뒤, 같은 해 5월과 8월 시행된 공개입찰에 친분이 있는 업자 2명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자신이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B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밖에도 서울의 판매업자와 무자격 취급업자로부터 중고 의료장비를 사들여 제조일자를 삭제한 뒤 신형인 것처럼 속여 광주 시내 병원 2곳에 팔았으며 약사 2명에게 월 100만원씩에 면허를 대여받아 의약품 도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상납 비리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지는 부정한 연결고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4만원어치 옷 절도범 잡고보니 수십억대 자산가

쌍나팔

○…내복 등 14만 원어치를 훔친 50대 남성을 잡고 보니, 그의 지갑에 현찰이 200만원 있고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소유한 수십억원대 자산가로 드러나 경찰도 '화들짝'.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58)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2층 김모(여·35)씨가 운영하는 속옷매장에서 남성용 러닝셔츠 8점, 내복 1점을 고른 후 마트 후미진 곳에서 포장지를 뜯고 입고 있던 외투 안에 집어넣어 유유히 빠져나왔다는 것.

○…자신이 사는 서구의 한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힌 A씨는 "아들을 생각해 골랐는데 충동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빠져나왔다"고 범행을 실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여겨지지만 우리도 처음 잡을땐 깜짝 놀랐다"며 혀를 끌끌. /김형호기자 khh@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 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의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 대출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